

다산포럼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송 재 소
성균관대 명예교수

2017년 11월 15일 경상북도 포항에 진도 5.5 규모의 큰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주택, 공공건물, 학교 등이 피해를 입어 62명이 부상당하고 1537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지금까지 집계된 잠정 피해액이 522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20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주일 연기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이번 지진의 피해는 심각했다.

종교계 과세하니 지진 났다?

이와 같은 국가적 재난이 일어난 바로 다음 날, 전남 영암의 산호교회 이형만 목사는 서울 화곡동 성서교회에서 열린 부흥회에서 “종교계에 세금을 묻다 하나까

포항에서 지진이 났다”는 요지의 설교를 했다. 그는 이 설교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다 세금을 내라 하니”,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는다. 하나님을 건드릴 때 국가에 위기가 바로 다가오는 거다. 그걸 체험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러한 철박서니 없는 이형만 목사의 발언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아니 우리를 어이없게 하고 우리를 분노케 한다.

이형만 목사의 발언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한 직후에 내뱉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발언을 연상시킨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일본 국민이 신앙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 무신론, 물질주의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 목사와 조 목사가 내세우는 ‘하나님’이 정말 존재한다면 아마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은 ‘하나님 무고죄(嚴告罪)’로 이들을 처벌했을 터인데, 저들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건재한 것을 보면 과연 ‘하나님’이 정말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포항 지진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하늘의 준엄한 경고’라 한 당시 자유한국당 류여해 최고위원의 발언도 우리를 슬프게 한다. 이

른바 ‘대극기 집회’를 주도하며 ‘여자 흥준표’라 불리던 그녀가 그 흥준표로부터 서초갑 당원협의회 의장직을 박탈당한 후 두 사람 사이에 오고 간 거친 막말들은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한다. 국회의원들이란 원래 막말을 즐기는 존재이긴 하지만.

하필이면 ‘만절필동’이었나

2017년 12월 5일 신임 노영민 주중대사가 신임장을 제정하는 자리에서 ‘만절필동 공장미래’라는 문구를 썼다. ‘만절필동’은 ‘순자’(荀子) 유좌(有坐) 편에 나오는 말로, 공자가 동쪽으로 흐르는 큰 강물을 바라보고 있는데 제자 자공(子貢)이 그 까닭을 물으니 공자가 강물의 여러 가지 품성(品性)을 열거하는 가운데 ‘기만절야필동 사지’(其萬折也必東 似志)라 답한 말이다. 즉 “(강물은) 만 번 꺾이지만 반드시 동쪽으로 흐르는 것이 (군자의) 의지와 같다”는 것이다. 군자의 의지는 확고부동한 것이어서 강물이 결국은 동쪽으로 흐르듯이 아무도 그 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것이 이 구절의 본뜻이다.

이 구절은 후대에 여러 가지 의미로 원용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송시열(宋時

烈)의 유언으로 만동묘(萬東廟)를 세운 이래 ‘명나라에 대한 변함없는 충절’의 뜻으로 널리 사용되었다. 만동묘는 만절필동(萬折必東)에서 따온 명칭으로 이곳에는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준 명나라 신종(神宗)과 마지막 황제 의종(毅宗)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명칭에는 사대주의적인 색채가 짙게 배어 있다. 확대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중국의 천자를 향한 제후국들의 변함없는 충성’의 뜻도 내포하고 있다 할 것이다.

노영민 대사가 ‘만절필동’이란 말을 쓴 의도가 무엇일까? ‘군자의 굳은 의지’라는 본뜻과는 어울리지 않고 오히려 ‘중국에 대한 변함없는 충절’이라는 뜻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 이 사건이 국내에서 문제가 되자 주중 대사관에서는 ‘한중 관계가 우여곡절을 겪어오 반드시 좋아질 것’이라는 의미라 해명했다. 이렇게 해명하는 것이 전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다른 적절한 성어(成語)를 인용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하필이면 사대주의적인 혐의가 있는 용어를 선택했을 까. 노영민 대사의 사려 깊지 못한 처신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기보다 우리로 하여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하지 못하게 한다.

청춘 특·특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외침 ‘아이 캔 스피크’



강 소 헤
광주대 문예창작과 2학년

최근 한·일 위안부 협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난해 개봉했던 영화 ‘아이 캔 스피크’가 떠올랐다. ‘아이 캔 스피크’는 지난 2007년 2월 위안부 할머니들이 미국 워싱턴 연방의사당에 가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증언한 ‘역사적’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다. 당시 미 연방의사당 피해 증언 통해 일본이 위안부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현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이 영화는 기존 위안부 문제를 다룬 영화와 달리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320만 명이 넘게 관람했고, 위안부 할머니를 연기한 영화 배우 나문희씨는 청룡영화상 등 4개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 여성영화인상 시상식에서는 대상을 수상하는 등 사회적으로도 관심을 끌었다.

영화는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로 연관 지어 이야기를 풀어냈으며, 국내 언론으로부터 “때론 직설적 화법보다 우회적 화법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영화”라는 호평을 받았다.

‘아이 캔 스피크’는 ‘위안부’라는 묵직한 주제를 다루지만 내용 자체는 단순하다. 일제 강점기 위안부로 끌려갔던 나육분 할머니가 명진구청 공무원 박민재의 도움으로 영어를 배워 자신의 피해 사실을 미 의회 청문회에 증언한다는 이야기이다. 얼핏 보면 영화 도입부에서 ‘오지랖 잔소리꾼 할머니’와 ‘차갑고 기계적인 공무원’이라는 우리가 평소 흔히 접하게 되는 익숙한 캐릭터 설정이 그다지 특별한

구석은 없어 보이지만, 극이 진행되면서 관객들의 몰입과 공감을 서서히 끌어올리는 매력이 있다.

극이 시작함과 동시에 이후에 전개될 단초들을 극 구석구석에 펼쳐놓는 솜씨 또한 눈길을 끈다. 게다가 영화 곳곳의 에피소드 속에 ‘공시 열풍’을 비롯해 정경 유착, 노인 혐오, 나태하고 권위적인 공무원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녹여낸 점도 눈에 띈다. 극 후반부에서 미 의회 청문회에 참여한 나육분 할머니가 영어로 증언을 마치고 나와 청문회에 출석한 일본 관계자를 향해 간절히 외친다.

“제발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말해 달라. 그 말이 그토록 어렵나?”

이 장면은 보는 이로 하여금 눈물샘을 자극하며, 진한 감동을 선사한다. 영화 ‘아이 캔 스피크’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대신 해 다급한 외침이 되고 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일본이 공식적으로 죄를 인정하고 사과하기를, 그래서 우

리가 용서할 수 있기를” 바라던 많은 위안부 할머니들은 이제 세상에 몇 분만이 남아있다. 지난 5월 위안부 피해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시면서 한국정부에 공식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239명 중 단 31명만이 생존하게 됐다. 지난해에만 8명이 돌아가셨다. 시간이 갈수록 할머니의 숫자는 줄어든 것이다. 나육분 할머니의 실제 모델인 이육수 할머니가 미 의회 청문회에 증언한 시점은 2007년이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났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위안부 문제는 더 이상 손 놓고 바라만 볼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이지만 받아들여야 한다.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며, 마땅히 일본에게 사과받아야 할 일이다. 일본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요청하는 것, 피해 사실을 널리 알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위안부 할머니들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제는 ‘아이 캔 스피크’를 우리 모두가 이어받아 외쳐야 할 때이다.

기 고

다문화 사회를 준비하며



이 승 권
조선대 문화학과 교수

2018년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재한 외국인에게 매우 중요한 해가 될 전망이다.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과 제3차 ‘다문화 가족 정책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2017년에 재한 외국인이 200만을 넘어섰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절벽이 현실화되면서 해외의 인재를 국가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인구의 10%가 넘는 재한 외국인의 등장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항상 긍정적인 결과만을 기대할 수는 없다. 다양한 유형의 이민 정책을 시행한 바 있는 서유럽의 혼란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체계적인 재한 외국인 관리 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외국인 정책의 토대가 되는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있어서 제정된 ‘다문화 가족 지원법’은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다. 정부는 제3차 ‘다문화 가족 정책 기본계획’의 비전을 ‘참여와 공존의 열린 다문화 사회’로 설정하고, 차별 없는 다문화 사회 구현과 다문화 가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5대 정책 과제를 설정하였다. 세부적으로 다문화 가족 정책지원,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다문화 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과 역량 강화, 상호 존중에 기반을 둔 다문화 수용성 제고, 협력적 다문화 가족 정책 운영을 위한 추진 체계 강화 등이다. 새로운 정책 과제를 통해서 다문화 가족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처럼 다양한 외국인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외국인 정책의 방향은 명확하지 않다. 다수의 이민자를 수용한 바 있는 서유럽 국가들은 외국인 정책의 기초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서유럽의 외국인 정책에는 관용과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정신이 반영되어 있다. 차별을 금지하는 인본주의 정신에 따라서 서로를 인정하고 공존을 추구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에 서유럽이 추구한 다문화 정책이 실패했다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도 다문화 정책의 실패를 고백한 바 있다. 특히 인권 선진국인 스위스에서는 이민자 유

입을 통제하는 법안이 국민 투표에서 추진되었다. 이러한 결정은 쉥겐 조약(Schengen agreement)을 위반할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지만 스위스만의 돌출 행동이라기 보다는 이민자에 대한 서유럽 국가들의 정서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은 외국인들을 받아 들여야 할 상황이다. 다문화 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이고 공존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하여도 외국인 정책의 방향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구의 10%를 넘어설 것으로 예견되는 외국인의 수용이 어떤 결과물을 가져올지 걱정이 앞선다.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과 ‘다문화 가족 정책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시점에 가장 필요한 것은 외국인 정책의 지향점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외국인 정책에서 검증된 대안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른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를 기반으로 하되 사회 통합의 관점에서 보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결혼 이주민과 다문화 가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다문화 정책을 재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확대시켜야 한다. 특정 집단을 위한 시혜적 차원의 정책보다는 기본권 보장과 세계 시민

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다문화 정책이 다문화인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과 공유하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

다문화 정책이 다문화인을 주변인으로 인식하게 하는 정책이 되어서도 안 된다. 따라서 다문화인의 우수한 재능을 개발하고 노동시장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다문화인이 경험하는 문화적 충격과 의사소통 장애를 장점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다문화인이 내세울 수 있는 재능이 이중 언어 능력이라는 점에서 특수 외국어 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언어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된다면 다문화인의 능동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대학 기업과 협력하여 다문화 가족의 입학을 장려하고 취업과 연계된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면 전 세계에 불어 닥친 한국어 열풍과 함께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다문화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변화된 시대의 요구에 맞게 설계된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과 ‘다문화 가족 정책 기본계획’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다문화 사회의 정착은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社 說

‘1987’ 열풍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영화 ‘1987’의 열기가 뜨겁다. 개봉 7일 만에 벌써 관람객 400만 명을 돌파했다. 가히 신드롬이라 할 만하다. 영화가 흥행 물이를 하면서 갖가지 화제도 넘쳐나고 있다.

그중엔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쓴 김경찬(48) 작가도 포함된다. 그는 전남대에서 시위를 하는 대학생들이 학교 운동장으로 도망쳐 왔어요. 전경들이 학생들을 무자비하게 구타하는 모습을 유리창 너머로 봤죠. 저도 극중 연희처럼 전남대 신방과에 입학한 후 선배들이 보여 주는 비디오토 5·18 민주화정을 접했습니까.”

마트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부당하고 사건을 다룬 영화 ‘카트’의 작가이기도 한 그는 목포 MBC에서 15년간 다큐멘터리 PD로 일했다. 그 당시 실제 사건에서 핵심을 추려 작품으로 만드는 작업을 수백 번이나 했다고 한다. 이 경험이 6·10항쟁이라는 거대한 실제 사건을 영화로 옮기는 것을 가능케 했을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영화는 99% 실화입니다. ‘잘 가그래이.’ 고(故) 박종철 군 아버지가 유골을 뿌릴 때 하는

말, 남영동 대공본실에서 박치원 치안감이 정보국장을 때리는 장면까지 사실에 근거를 뒀죠. 영화의 존재 빠고는 거의 다 실화입니다.”

한데 ‘연희’라는 1%의 허구가 들어간 이유는 뭘까. 이한열 열사와 박종철 열사라는 중요한 두 인물을 영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연결해 보여 줄 만한 장치가 필요했는데 그게 연희였다고 한다. 데뷔작인 ‘아가씨’(감독 박찬욱)로 크게 주목받은 뒤 하정우·김윤석·강동원 등 화려한 출연진 속에 당당히 흥일 점으로 합류해 연회를 연기한 김태리의 연기력도 극찬을 받고 있다.

영화는 열사의 죽음에서 시작해 열사의 죽음으로 끝난다. 참다운 젊은이들의 죽음에 시민들은 분노했고, 이 분노가 철옹성 같은 군부독재를 무너뜨렸다. 마치 지난해 온 국민이 참여한 촛불집회로 박근혜 정권이 몰락했듯이.

영화를 보고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렸다.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제 다시는 또 다른 열사의 출현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다짐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 모두 자신만의 ‘거울’을 찬찬히 들여다볼 때이다.

오리 사육 밀집단지 이전 부작용 없도록

AI(조류 인플루엔자)로 축산 농가가 쑥대밭이 됐다. 방역과 차단 등 매뉴얼 대로 진행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예방과 확산 차단에 실패한 전남도가 AI 병원을 옮기는 철새의 도래지로부터 닭·오리 등의 축사를 옮기는 방안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AI바이라스는 통상 중부 지역에서 먼저 검출했으나 올해는 순천 등 남부 지역에서 시작해 한 달 새 전남에서만 8건의 고병원성 AI가 확인됐으며 그동안 65만 마리가 살처분됐다. 전남도와 시·군은 AI전담 조직까지 꾸렸지만 확산을 막지는 못했다. 결국 애할·방역 외에는 근본적인 차단책이 없는 셈이다.

이에 전남도가 먼저 닭·오리 축산 농가를 철새 도래지 3km 밖으로 이전키로

했다. 또 나주·영암과 같은 사육 밀집 지역은 바이라스의 이동·확산을 막기 위해 농가 간 거리를 500m 이상 떨어뜨리기로 했다. 전남도가 지난 10년간 살처분 비용으로 약 1900억 원을 투입한 점에 비해 보면, 예산 지원을 통한 농가 이전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이 대책의 성공 여부는 전적으로 농가의 협조 여부에 달렸다. 사육지는 기본적으로 농가들의 재산권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전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도는 농민들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최대한 설득해야 한다. 농가들도 축산의 흐름이 엄격한 방역 시설을 갖춘 동물 복지형으로 변하고 있는 점을 감안, 최대한 이전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새해 들어 ‘소확행’(小確幸)이란 단어가 자주 입에 오르내린다. 소확행은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란 뜻으로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처음 쓴 말이다. 그는 한 수필집에서 ‘행복’이란 ‘갓 구운 빵을 손으로 찢어 먹는 것, 새로 산 정갈한 먼 냄새가 풍기는 하얀 셔츠를 머리에서부터 뒤집어올 때의 기분’이라고 정의했다. 이후 소확행은 지난해 말한 대형 포털사이트에서 ‘2018 트렌드 키워드 #1’,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가 선정한 10대 소비트렌드로 각각 꼽히는가 하면 ‘트렌드 코리아 2018’이라는 책에 비중 있게 언급되기도 했다.

비슷한 의미의 말로 덴마크의 ‘휘게’(hygge)나 스웨덴의 ‘라곰’(lagom), 프랑스의 ‘오캄’(au calme) 등이 거론된다. 덴마크인이 지향하는 삶인 ‘휘게’는 ‘좋아하는 사람과 거실에 앉아 장작불이 타닥 타오르는 소리를 들으며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일상적인 분위기를 말한다.

스웨덴의 ‘라곰’은 ‘딱 알맞은 양’ ‘적당히’ ‘충분히’를 뜻한다. 스웨덴 사람들은 라곰한 크기, 라곰한 양, 라곰한 기분, 라곰한 분위기, 라곰한 맛을 중

요시하며 과한 것을 바라지 않는 편이고 소박한 삶이 행복의 비결이라고 생각한다. 프랑스의 ‘오캄’은 ‘고요한’ ‘한적한’ 분위기를 뜻하는 것으로 오캄 라이프는 심신이 평온한 상태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삶을 여유롭고 편안하게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소확행은 최근 몇 년 사이 소비트렌드로 떠오른 ‘올로’(YOLO : 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고 소비

하는 태도)와도 비슷하지만 소소한 것에 만족한다는 점에

서 강조되는 바가 다

르다. 구세대들은 다음 세대를 걱정하며 현재의 불만과 불행을 견뎌 왔다는 점에서 이런 행복 지향적 세대를 못마땅해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인간 삶의 궁극적 목적이 ‘행복’이란 점에서 꼭 이상하게만 받아들일 바는 아니다. 더욱이 소확행은 과소비나 물질 만능에 가치를 두지 않으니 오히려 권장할 만하다. 작은 행복이 모이면 결국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되지 않겠는가. 올 한 해가 소확행으로 가득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지성 서울취재 본부장 jkpark@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11월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600)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FAX 220-0697)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년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